

“홍석화 대표이사,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31일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인천검찰청 앞 기자회견... “부당노동행위 엄벌 본보기로 삼아야”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김동용 지회장 직무대행)가 10월 31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도헬라의 노조파괴를 규탄하고 홍석화 대표이사의 구속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만도헬라가 노동부 시정명령 대로 조건 없이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파괴를 위해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만도헬라는 노조파괴 의도를 담고 노동조합이 아닌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과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를 작성했다.

지회는 만도헬라가 지난 10월 25일 위법 단체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과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

를 작성한 사실을 비판했다. 지회는 ▲노조 아닌 단체와 체결한 합의는 법적 효력 없음 ▲소송과 고소 취하 부제소 전제 부당 요구 ▲금속노조 약화를 노린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회는 10월 27일 만도헬라에 위법 단체와 맺은 합의를 철회하고 금속노조와 제대로 된 특별 협의를 열자라고 요청한 상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22일 만도헬라와 홍석화 만도헬라 사장, 파견업체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한다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만도헬라는 사건 송치 이후 추가로 노조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노조 아닌 단체와 합의를 맺는 행위가 불법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방조, 은폐한 홍석화 대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만도헬라의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에 관해 사전에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방조, 은폐한 홍석화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정식 기소해 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1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에 관한 역할을 촉구한다. 금속노조는 11월 2일 한라그룹 본사인 서울 잠실 시그마타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조건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동자 죽었는데 노동청장이 공장가동 안달복달”

30일, 오복수 대전노동청장 해임 요구 기자회견... “자본 편드는 실무 책임자 적폐가 노동적폐”



금속노조가 10월 3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보다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지난 10월 22일 정련공정에서 일하는 32살의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와 롤 사이에 끼어들어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끊어진 고무 원단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일로 마땅히 기계로 해야 할 작업이었다. 사고 즉시 양장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장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사측의 방해로 현장에 접근하지 못 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번 중대재해와 관련해 10월 24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 천막 분향소를 설치하고 ▲대전공장 전수조사 ▲작업중지권 해제와 연장 결정에 노조 의견 반영 ▲목적조합원 두

명에 대한 심리치료와 대책 마련 ▲작업중지 발동 중 작업 진행에 대한 조치 ▲명예감독관제도 도입 등 요구하고 있다.

사망사고 직후 한국타이어지회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대전노동청에 현장조사와 후속 대책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노사정이 함께 안전보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이 전수조사 하루 만인 10월 26일 한국타이어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안전시설 개선작업을 허용했다. 노조와 맺은 협의를 깨고 일방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했다.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청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반성과 사죄없이 작업중지를 해제했다. 작업중지 해제는 또 다른 사망사고의 여지를 열어놓은 셈”이라며 “작업중지는 호소나 요청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 안전 관리 책임을 버린 오복수 청장의 해임은 고용노동부가 응당히 할 일이다”라고 규탄했다.

양장훈 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은 “대전노동청이 노동자와 함께 문제를 개선하지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 개선명령을 내렸다. 사전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본과 짜고 뒷거래로 나쁜 짓을 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양장훈 지회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동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무 책임자는 그대로다. 노동적폐는 실무적폐다. 현장을 감시하고 바뀌어야 할 실무책임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지회의 요구는 깨끗한 환경에서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거다. 지회는 이 목소리에 귀 닫는 노동적폐를 없애는데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대전고용노동청 앞 천막분향소를 유지한다. 10월 30일부터 매일 노동부 청사 앞에서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 해임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간다.